

## 엔지니어링 컨퍼런스 개막

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행사로는 최대인 <엔지니어링 국제컨퍼런스 2012>가 9월9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.

컨퍼런스는 9월12일까지 녹색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(Beyond Green-A New Paradigm) 주제로 열린다.

특히, 세계 90개국의 엔지니어링 관련단체, 글로벌 엔지니어링기업, 발주처를 비롯해 세계은행,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등이 참가해 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상담에 나선다.

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수주 및 사업 활동 기준을 정하는 FIDIC(국제엔지니어링 컨설팅연맹)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.

9월10일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가며 케임브리지대학의 피터 거쓰리 교수, 스탠리 컨설턴트의 그렉 토모폴리스 회장 등 66명의 발표자들이 자원 고갈, 기후변화 문제 등 지속가능 개발에 관련된 사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.

엔지니어링은 플랜트 및 SOC 건설과 관련된 기획·타당성조사·기본계획·설계·구매조달·시험·감리·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칭한다.

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은 미국, 영국, 네덜란드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 등 5개국이 세계시장의 60%를 장악하고 있으며, 한국은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8억달러로 1.2%를 점유하는데 그쳤다.

<화학저널 2012/09/10>